창의성 부재의 비극 : 러일전쟁 기간 러시아군 참모부의 군사전략

朴 明 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연구원)

1. 서 론
2. 러시아 군사전략을 규정지은 군사외적 요인들
3. 일본군의 군사전략과 러시아군의 대응
4. 빈약한 창의성 : 러시아군의 군사전략
5. 러일전쟁에서 함대의 역할에 대한 분석
6. 결 론

1. 서 론

1904~5년의 러일전쟁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결정한 두 강대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 그 자체로서도 커다란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 사건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1870년의 보불전쟁 이후 최초로 발발한 강대국 사이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세계열강 각국의 군사 전략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관심은 한반도와 만주라는 전쟁무대에 파견된 수많은 종군사가(從軍史家)들과 전쟁 직후 각국 참모부에서 발간된 러일전쟁사에 관한 많은 서적들에서 엿볼 수 있다.[1)]

보불전쟁을 승리로 이끈 몰트케의 전략핵심은 근대자본주의의 총아로 등장한 철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켜 한 장소로 집결시킨 후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주력부대를 짧은 시간 안에 섬멸시킨다는 데 있다. 그 이후 세계군사전략의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전된 독일군의 이 작전모델이 30여년이 지난 후 동아시아 무대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철도 및 통신 등의 사회간접시설이 빈약하고 지리적으로는 험난한 산악지형으로 특징 지워졌던 한반도와 만주에서 전통적인 군사전략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즉 당시 러일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아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능력이 요구되었다.[2)]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략적 창의성의 핵심은 해군전력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었다. 이것은 단지 섬나라 일본이 병력과 물자를 대륙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숙명적인 조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륙으로 이동된 병력과 물자를 더욱 빨리 전투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운송수단은 바로 수송선단이었던 것이다. 청일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일본군 참모부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강대국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함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자신들의 군사행동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러한 일본군의 전략에 맞선 러시아군 또한 적극적인 해상활동을 핵심으로 한 전략으로 맞서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여순함락 및 쓰시마 해

1) Истор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1904-1905 гг.(M., 1977), с. 13-18.

2) А. А.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XX век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Планирование вой ны и оп ераций на суше и на море в 1904-1905 гг. В кн. Предрассудки и боевая дей с твительность(M., 2003), с. 99-218.

전에서의 참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군은 함대의 활용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일본해군과 비교된 러시아 해군전력의 상대적 우열이나 또는 더 나아가 해전에서의 승패 그 자체가 아니라 러시아군 참모부의 함대에 대한 관념이었다. 러시아 만주군 총사령관 꾸로빠뜨낀이 전후에 저술한 자신의 저서에서 인정한 것처럼, 러시아 육군과 해군 지휘본부 내에서는 개전 초기까지 태평양 함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작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3] 함대가 수행해야 할 당면의 임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04년 5월초 일본군의 요동반도 상륙으로 여순항의 고립이 명확해졌을 때였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여순함대 및 육군수비대의 지휘관들은 여순을 항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요새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함대의 존재이유를 둘러싼 논쟁을 하였다.[4] 전쟁의 결과가 말 해주듯, 여순함대는 요새로서의 여순을 방어하는 수비대의 일부분으로 전락하였고 개전 초기 일본의 연합함대와 거의 대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여순함대는 여순함락과 함께 일본지상군의 포격 아래 궤멸되었다. 여순공방전을 분수령으로 하여 러일전쟁은 종말점으로 빠르게 치달았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쓰시마 해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해군의 승리를 한껏 장식해 주는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었다.

러시아군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은 물론 함대개념의 부재에 있었지만 러시아군 참모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여러면에 걸친 것이었다. 전쟁 발발 이전은 물론 전쟁기간 동안에도 러시아군 수뇌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국가적 과제는 독일과의 관계에 있었다. 독일과의 군사 및 외교적인 긴장관계 때문에 러시아는 전력의 대부분을 서부전선에 배치하였는 데, 이 문제는 사실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지은 핵심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였다.

---

3) А. Н. Куропат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Итоги вой ны (СПб., 2003), с. 355-358 ; А. А.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с. 183.

4)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1904 (М., 2003), с. 144-147.

러시아군 참모부가 고려해야 했던 또 하나의 골칫거리는 러시아 재무성과의 알력과 갈등이었다. 시베리아철도 및 여순항 건설을 둘러싼 러시아 정부 내의 불협화음은 군 참모부 전략구상의 범위를 대폭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트케의 지침에만 의존한 러시아군 참모부는 지상전에서는 "인내와 보강"이라는 전략개념에 따라 후퇴와 패배를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계속된 패배는 지휘관들이나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되었고 후방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항해술이나 함포사격 등의 기본적인 전술훈련도 받지 못한 여순함대의 지휘관들은 일본함대와의 해상전투는 물론 출항 자체를 두려워하였다. 러시아해군의 지극히 낮은 수준의 해상작전 수행능력 때문에 일본군과 같은 육·해군의 합동작전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러시아군 참모부는 함대에 특별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일본과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력과 함정의 수(數)로만 전력(戰力)을 평가하고 그 수치 위에 개성없는 작전을 구상한 군 참모부 그 체제에 있었다.

이 글에서는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와 일본의 객관적인 전력비교나 또는 구체적인 전투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러시아군 참모부의 개략적인 군사전략이 주된 관심대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외교와 경제를 비롯한 군사외적인 요인들이 검토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본군의 전략과 이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응 그리고 러시아군의 전략이 지상군과 해군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쟁 발발 이후 여순함락까지의 진행과정을 시간별로 그리고 일본 육군과 해군의 합동작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두 교전 당사국 사이의 전략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군 참모부가 처해있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창의성의 부재가 러일전쟁 패배의 핵심요인이었다는 점이 주장될 것이다.

2. 러시아 군사전략을 규정지은 군사외적 요인들

러일전쟁 개전 초기 러시아는 110만 명의 정규군과 35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했던 군사대국이었다. 반면에 일본군은 10만 명의 정규군과 25만 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었다. 문제는 러시아군 병력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전선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었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는 10만 여명의 병력만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5]

러시아가 주력부대의 대부분을 서부전선에 배치시킨 이유는 러시아군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서유럽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만주군 총사령관 꾸로빠뜨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군 참모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던 이해관계의 우선 순위는 서부전선 - 러시아 국내의 안녕과 질서 -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 아무르강 유역과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안전 유지 - 만주 - 한반도였다. 즉 만주와 한반도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에서 최하위의 관심대상이었다.[6]

러시아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부터 느끼고 있었던 위협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발달된 철도망을 바탕으로 한 두 국가의 빠른 병력동원 능력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과의 교전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참모부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배후로부터 기습을 당하여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기간 동안에 극동지역에 새로 투입된 대부분의 병력은 서부전선의 정규군이 아니라 급속하게 편성된 예비군이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 국제정세를 규정하는 한 축이 되었던 러시아와 독일의 외교 및 군사적인 긴장관계는 러불동맹과 독일의 세계정책

5) Н. А. Левицкий ,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одов. В кн. Н. А. Левицкий , Н. Д. Быков,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М., 2003), с. 22, 26, 38, 45.

6) А. Н. Куропат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с. 164.

(Weltpolitik)의 충돌로 설명되며 이 과정에서 청일전쟁 직후에 있었던 일본에 대한 러·불·독 삼국간섭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타난 일시적 타협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독일은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동부전선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한편 러불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프랑스는 동맹국인 러시아를 잃지 않기 위하여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7]

중요한 것은 독일과 러시아의 적대적 관계가 1895년의 일시적 타협 이후 재개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전쟁사가 쉬로꼬라드는 독일은 러일전쟁 기간 동안에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유일한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프랑스와 러시아라는 양쪽의 전선을 상대하기를 두려워한 독일이 러불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러일전쟁이라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전쟁사가의 견해에 따르면, 여순항 기습, 봉천회전 그리고 쓰시마해전 이후에도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방하였다. 관계개선을 모색하던 두 열강의 외교적 접촉의 극적인 장면은 러시아가 혁명의 수렁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던 1905년 6월 11일 비요르끄에서 연출되었다. 요트에서 만난 빌헬름 2세와 니꼴라이 2세는 비밀협약에 서명하였는 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협약 제3조가 문제가 되었는데, 협약의 효력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발효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츠머드조약 체결 직후 귀국한 비떼는 이 비밀협약의 무효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니꼴라이 2세는 끝내 동의하였다.[8]

---

7) 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서울 : 지식산업사, 2001), 141-143쪽 ; A. 말로제모프(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서울 : 지식산업사, 2002), 107-108쪽 ; Истр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Конец XIX－начало XX века. (От Русско-французского союза до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М., 1997), с. 133-136.

8) А. Б. Широкорад, Россия-Англия : Неизвестная вой на, 1857-1907 (М., 2003), с. 472-483.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진행되었던 외교적 교섭과정과 관계없이 러시아군 참모부는 양국 사이의 외교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였다. 전쟁 전은 물론 진행과정에서도 주력부대를 서부전선에 계속 배치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쟁의 주도권은 개전 초기부터 종결 때까지 일본군의 손을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개전 초기 러시아 육군전력의 객관적인 열세에 따른 후퇴 및 패배 전술은 전력이 대등해지거나 우세해진 종전 때까지 일관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은 러시아군의 일반 병사들은 물론 지휘관들에게까지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9]

개전 초기 러시아 지상군이 전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병력의 신속한 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적군의 진격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앞의 방법에서는 시베리아 철도가 러시아군의 승패를 좌우할 유일한 희망이었는 데, 이 철도가 모스크바 주변의 중앙러시아와 극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철도는 전쟁 발발 전까지 단선으로 부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송의 효율성은 극도로 낮은 형편이었다. 따라서 철도의 복선화는 러시아군의 핵심적인 과제들 중의 하나였는 데, 문제는 이 건설작업이 짧은 기간 안에 끝날 수 없다는 데 있었다.[10]

시베리아 철도 건설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875년이었지만 당시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실현될 수 없는 공론(空論)에 그치고 말았다. 1891년에 착공된 시베리아 철도 건설은 프랑스자본의 유입 덕분에 가능했다. 양국의 경제적으로 밀접해진 경제 연관성은 다시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었다. 문제는,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철도의 복선화 작업에 있었는데, 전쟁 발발 이후 시작된 이 작업은 겨우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르러서야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될 수 있었다.[11]

---

9) A. H. Куропат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c. 274.

10) A. H.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c. 200.

11) Steven G. Marks, Road to Power : The Trans-Siberian Railroad and the Colonization of Asian Russia, 1850-1917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 Press, 1991), pp. 200-206 ; A. H.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c. 197.

철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1895년의 삼국간섭 이후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여순항을 조차한 러시아는 경제적인 고려 속에서 처음의 계획을 수정하여 요동반도를 관통하는 노선을 부설하였다는 점이다. 이 결정은 곧바로 의화단의 난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쟁기간 동안에도 러시아군은 일본군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중국 주민들의 공격으로부터 철도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12]

철도가 러시아군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면 적의 진군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시간을 벌 수 있었던 대안은 해군력의 강화였다. 그러나 시베리아철도가 요동반도를 관통함으로써 "철도방어"보다 더욱 커다란 군사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새로운 철도부설 계획에 따라 최종 종착역은 여순항과 그리고 이 항구에서 3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련항으로 결정되었다. 항구도시로서 대련항의 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은 이 항구를 통하여 발전되었다. 순수한 상업항구인 대련에는 대양을 항해하던 대형 선박들이 입항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들이 건설되었다.[13]

후에 러시아가 대련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치뤄야 할 군사적인 대가는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여순항은 도크가 없는 항구로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즉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겨울에 바닷물이 얼어붙는 블라디보스톡항과 도크가 없는 여순항, 이 두 개의 절름발이 항구를 기지로 하였던 것이다. 도크의 중요성은 해상전투에서 손상을 입은 함선들을 빠른 시일 내로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1904년 2월 8일의 일본군의 기습작전으로 부분 파손된 3척의 여순함대 군함의 출항은 겨우 6월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

12) А. Н. Куропат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с. 139-141 ; 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c. 181-207.

13) Н. А. Левицкий , П. Д. Быков,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с. 73-74;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с. 126.

군사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여순항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결함은 완벽한 준비를 갖춘 요새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해안가 및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지들의 요새건설이 부실하거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적의 함포사격에 맞대응할 수 있는 러시아측의 진지사격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 일본함선들은 여순항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여 러시아 함선 및 항구 내부의 주요지점들에 대한 포격을 자유자재로 가할 수 있었다. 1904년 8월 이후 일본지상군의 포위공격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지들을 육탄으로 방어해야 했지만 결국 군함에 있던 포들을 고지들로 이동시켜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14]

군사적인 관점에서 노출된 여순항의 취약점은 도크와 포진지(砲陣地)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 상업항구 대련항을 거의 아무런 군사적인 저항 없이 무혈 점령한 일본군은 이 항구를 곧바로 만주내륙으로의 북진 및 여순항 공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대련항은 전투없이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항구는 물론 도시 내부에 건설된 수많은 건물, 시내전차 그리고 통신 등의 근대식 사회기반시설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일본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되었다. 대련의 점령과 함께 일본육군은 여순 포위·공격 작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러시아 지상군이 여순을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15]

1895년에 청일전쟁이 종결된 이후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은 명확해졌다. 그 이후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전 9년 동안 일본은 영일동맹을 비롯한 열강 각국들과의 보다 긴밀한 외교관계 수립 및 함선건조 그리고 군조직의 재편

14) П. Д. Быков, Дей ствия на море в русско-японскую вой ну. В кн., Н. А. Левицк ий , П. Д. Быков,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с. 490; А. Н.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с. 120-122, 207; В. А. Золотарев, И. А. Козлов, В. С. Шломин, История флота гос ударства россий ского. Т. 1(М., 1996), с. 181; А. А.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с. 154-156; А. Б. Широко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 ны 1904-1945 гг.(Мн., 2003), с. 195-197.

15) А. Н.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с. 120-122;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с. 126.

성 등 일관된 계획 아래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심각하게 진행되었다.[16] 반면에 러시아 국방성은 외무성 및 재무성과의 유기적인 협력없이 전쟁에 대비하였고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독일과의 외교관계, 시베리아철도 건설 그리고 여순항과 대련항 건설 등에서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통합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하는 부처로서의 총리가 없었던 러시아 전제군주제의 특이한 통치구조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국방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 사이의 부조화는 전쟁의 전체적인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두되었고 러시아군 참모부는 이렇게 제한된 조건들 속에서 자신들의 전략을 구상해야만 했다.[17]

3. 일본군의 군사전략과 러시아군의 대응

개전 이후 전쟁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본군 전략의 핵심은 해군과 육군의 유기적인 협력에 있었다. 이것은 청일전쟁에서의 경험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는데, 그 당시 일본육군은 한반도 남부에서 북부 그리고 요동반도로 차근차근 진격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해군의 근거지 또한 북상되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일본육군의 목표가 중국지상군의 섬멸이 아니라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었다는 점이다.[18]

청일전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일본군의 전략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속도의 문제와 러시아 태평

16) 조명철,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군사』(제51호, 2004. 4), c. 351-357.
17) A. H.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c. 120-127, 131-134.
18) A. A.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c. 112-113.

양함대의 존재였다. 1904년 초까지 전쟁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러시아가 시베리아철도를 따라 대규모 병력을 만주에 집결시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일본군의 지상과제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력과 물자를 육상이 아닌 해상으로 운송해야만 했다. 따라서 제해권의 장악은 필수적이었는 데, 태평양함대의 주력부대였던 여순함대는 이러한 계획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순함대에 더하여 발틱함대가 합류한다면, 객관적인 해군전력은 러시아측의 우세로 판가름 날 것이었다. 따라서 발틱함대가 전쟁의 무대에 나타나기 전에 여순함대를 궤멸시킨다는 것이 일본군의 기본적인 구상이었다.[19]

육상전과 해상전을 적절히 배합한 일본군의 전략은 당시의 지침이었던 몰트케의 전략개념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었다. 우선 몰트케의 전쟁수행 지침은 대륙에서의 전쟁을 상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함대의 활동은 전혀 취급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일본지상군은 개전 초기에 함대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일본육군은 해군기지를 북상시키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전략지침이 병력의 집중이었던 반면 일본군은 병력의 분산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은 함대의 활동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리고 여러 지점에 지상군 병력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20]

일본참모부가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하여 함대의 활동에 모든 전력을 기울인 것은 단지 일본이 섬나라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반도와 요동반도에 투입된 러시아군과 일본군은 신속하지 못한 군수물자 운송체계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어야 했는데, 꾸로빠뜨낀은 수비에 치중했던

19)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 엄수현(역), 『日本軍事史 : 경제대국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해부』(서울 : 시사일본어사, 1999), 126-127쪽 ; A. A. Свечин, 위의 책, c. 133-135 ; Н. А. Левицкий ,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74-75;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Составлено Англий ским генеральным штабом(영국참모부 편집 : 이하에서는 영국참모부로 표기함), Вып. 1(СПб, 1908), c. 69-72.

20) A. A. Свечин, 위의 책, c. 136-139.

봉천회전 때까지 전체 병력의 75%만이 그리고 공세로 전환했던 1905년 4월에는 단지 51.9%만이 전투 병력이었고, 나머지 병력은 군수물자수송, 식량공급, 의료 등에 투입되어야만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21] 이러한 사정은 일본군 또한 마찬가지로 직면했던 문제였다. 전쟁 직후 편찬된 "러일전쟁"에서 영국참모부는 "러시아군보다 더 대단한 적은 호우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전쟁 기록은 또 1904년 7월에 요동반도에서 전개된 한 전투에서는 일본군 제12사단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하여 12,000명의 짐꾼들이 고용되었으며 개전 초기 한반도에서 압록강을 향하여 북진하던 일본군의 진격속도는 하루에 고작 5마일에 불과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참모부는 러일전쟁의 무대에는 "유럽적 의미의 도로가 없다. 단지 부드러운 진흙을 따라 이어진 발자국과 오솔길이 있을 뿐이며 집중호우 뒤의 진창 속에서 통행은 불가능해진다"고 단언하였다.[22]

이러한 도로사정 속에서 일본지상군의 진격속도는 계획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곧 러시아군이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쟁 초기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압록강 도하작전은 예정보다 15일 늦게 이루어졌고 러시아군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순항을 빠른 시일 안에 점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진격속도를 중요시한 일본군에게 상륙작전을 통한 병력과 물자의 신속한 운송은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23]

일본군의 전반적인 전략을 짚어보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은 그들의 전략을 바라보았던 러시아군 참모부의 관점이다. 전쟁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놀이가 아닌 쌍방 간의 게임이기 때문에 한 쪽의 의도를 다른 쪽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21) А. Н.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с. 368-370. 463-467.
22)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1, с. 66, Вып. 2(СПб., 1909), с. 176, 184-185.
23) А. А.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с. 140-142.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인물은 러시아군의 작전을 총지휘했던 꾸로빠뜨낀이다.

패장으로서 자신의 변명과도 같은 대국민보고서 "러일전쟁"에서 꾸로빠뜨낀은 1901년 러시아군 참모부에서 채택한 "대일본군 작전에 대한 근본적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개전 초기에 일본군이 설정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략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침"에서 "① 일본군이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으로서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으로 작전반경을 제한할 경우, ② 한반도를 점령한 후 보다 적극적인 대러시아 작전을 전개할 경우의 목표지점 ⓐ 만주, ⓑ 여순항, ⓒ 남우수리 지역, ⓓ 블라디보스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때의 관심은 일본군의 활동반경에 집중되어 있다. 이 당시 전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여 있던 러시아 해군은 "가능한 한 적의 상륙을 지연시킨다는 비교적 제한된 임무로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24]

러시아 해군의 전력이 대폭 강화된 1903년에 니꼴라이 2세에게 전달된 참모부의 보고서는 여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대일본군 작전에서 우리는 방어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는 "2년 전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여순항은 상당 기간동안 고립될 것이며 …… 후방에서의 병력증원으로 공세 전환하여 일본군을 섬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얼빈 방향으로 후퇴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보고서에서는 2년 전과 비교하여 러시아 해군의 전력증강이 일본해군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결과 더 빨리 공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25]

태평양함대의 강화된 전력으로 러시아군 참모부의 자신감은 고양되었다.

---

24) А. Н.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с. 355-356; 작전범위에 대한 일본군의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조명철,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군사』(제51호, 2004. 4), c. 321-360.

25) А. Н.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с. 357-358.

1903년 짜르의 승인을 받은 극동지역에서의 군사전략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 계획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함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함대의 패배는 용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군이 인코우나 발해만(Кореский залив: 압록강 하구의 해안지역, 글쓴이)에 상륙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26] 문제는 러시아군 참모부가 단지 객관적인 해군전력만을 고려하였을 뿐이고 이 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적의 예상되는 진격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에는 소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구상에 대한 공백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곧바로 드러났다.

'지침'과 '보고서'에서 나타난 전략적 대응은 다소 추상적이었던 반면 일본군의 여순항 기습 이후 7일째에 니꼴라이 2세에게 전달된 꾸로빠뜨낀의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① 제해권 장악을 위한 함대의 투쟁, ② 일본군의 상륙작전과 이에 맞선 러시아군의 반격, ③ 충분한 병력이 집결될 때까지 광범위한 유격전의 전개를 포함한 방어전, ④ 공세로의 전환 및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군 축출, ⑤ 일본 본토로의 상륙과 이에 따른 일본국내 지역방위대의 형성과 발전 및 대중봉기와의 투쟁.[27]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공세전환 및 일본 상륙은 실제 러일전쟁의 진행과정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던 환상적인 계획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처음의 세 가지 항목은 러일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들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전략들은 러시아군 참모부의 문서로만 남았을 뿐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도 구성되지 않았다.

---

26)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Дей ствия сухопутных вой ск. Сборникд окументов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1904-1905 гг.(М., 1941), с. 20(이하 『러일전쟁 문서집』으로 표기함).

27) А. А.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с. 183.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당시의 교신기록들은 러시아군 참모부의 이러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신의 주체들은 당시 극동지역의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던 총독(наместник) 알렉세예프와 만주군 총사령관 꾸로빠뜨낀 그리고 니꼴라이 2세였다.

여순항 기습이 감행된 다음 날인 2월 9일 알렉세예프는 짜르에게 일본의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리며 자세한 내용은 신문 "러시아의 베테랑(Русский инвалид)"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그 자신도 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꾸로빠뜨낀은 일본군이 요동반도, 특히 대련으로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병력을 요동반도로 이동시켜 줄 것을 알렉세예프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알렉세예프는 일본군이 대련항으로 상륙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대답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1903년의 극동군사전략을 그대로 따를 것을 권고하였다.[28]

2월 25일 꾸로빠뜨낀은 알렉세예프에게 다시 여순항에 대한 수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알렉세예프는, 꾸로빠뜨낀의 요청과는 정반대로, 리네비치 장군에게 만주철도가 관통하는 랴오허강(江) 주변의 인코우-가이조우(요양-봉천과 가까운 지역) 라인의 수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명령은 곧 시행되었다. 2월 28일에 짜르는 알렉세예프의 이러한 결정을 승인하였는 데, 이 교신에서 그는 러시아 만주군의 첫 번째 임무는 만주철도 수비이고 여순항의 방어는 그 다음이라고 천명하였다. 같은 날 알렉세예프는 꾸로빠뜨낀에게 만주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해협 연안에서의 상륙은 랴오허강 주변에서의 상륙과 병행될 때에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9] 3월 9일 알렉세예프는 6″포들을 여순항에서 인코우 포대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인코우-가이조우 연안으로의 일본군의 상륙가능성이 프랑스로부터 전달되었고 게다가 중국인들의 만

28) 『러일전쟁 문서집』, c. 19-20.

29) 위의 책, c. 27-29.

주철도 공격 가능성이 러시아군 수뇌부를 긴장시켰기 때문이다.[30]

그러나 5월 초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요동반도 상륙은 한반도와 가까운 한국해협 연안에서만 전개되었는 데, 여순함대가 존재하는 한 여순항을 우회하여 인코우-가이조우 라인으로 직접 상륙한다는 것은 일본군에게도 대단한 모험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군 참모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감안하지 못한 것은 일본참모부의 작전구상에서 일관되었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일본군이 육상에서 진격하는 지상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만주철도 부근으로의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그다지 쉽게 결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일본참모부는 육군과 해군이 항상 서로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진격작전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의 요동상륙은 여순항구에 대한 폐색(閉塞)작전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직후인 5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러시아군이 방어해야 할 전선은 압록강에서 육상으로 진군하는 일본군과 요동반도 상륙부대 그리고 가상의 상륙지점인 만주철도 부근의 인코우-가이조우 라인으로 확장되었다. 꾸로빠뜨낀은 전력이 충분하게 증강될 때까지 조심스런 군사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순항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짜르에게 문의하였다. 알렉세예프를 통해 꾸로빠뜨낀에게 전달된 짜르의 답변은 러시아군이 두 방향에서 진격하는 일본군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것이었다. 그러나 꾸로빠뜨낀은 러시아군의 전력이 양쪽의 전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게다가 일본군 제 3군이 어느 쪽으로 투입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비 병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구상은 최종적인 승인을 얻었고 결국 5월에 요동반도로 상륙하던 일본군에 대한 러시아군의 활동은 "관찰(наблюдение)"로 제한되었다.[31]

---

30) 위의 책, c. 31, 33-34, 39-41.

31) 『러일전쟁 문서집』, c. 70-75; В. Я. Крестьянинов, Цусимское сражение 14-15 мая 1905 г.(СПб., 2003), c. 24.

여순인가 아니면 랴오허강 방면의 만주철도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왕좌왕하던 러시아군이 여순항 방어에 전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군의 진군방향이 명확해지고 도쿄로부터 입수된 일본군의 공식정보 또한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때였다.[32] 이때부터 러시아군은 이미 여순함대의 운명을 걱정하기 시작하였으며 8월에 시도된 여순함대의 블라디보스톡으로의 뒤늦은 탈출시도는 황해해전에서의 패배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 전쟁의 국면은 만주와는 고립된 항구도시 여순이 언제 함락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러시아 만주군이 여순항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일본군의 전략은 여순함대의 섬멸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여순함대를 살려둔 채 군사대국 러시아와 장기전을 수행하는 것은 힘에 부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순기습이 실패로 끝나면서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는 데, 일본군은 육군과 해군의 연합작전에 의해 여순함대를 섬멸시키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즉 도고제독의 연합함대는 함포사격, 기뢰(機雷)부설, 가미가제와도 같은 항구 폐색(閉塞)작전 등의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여순함대를 항구 내부로 묶어두는 한편 지상군을 가능한 한 빨리 여순에 도착시켜 이 항구를 함락시킨다는 전략이 구사되었다. 지상군의 진격경로는 한반도와 요동반도로의 직접적인 상륙, 두 가지의 길이 선택되었다.

반면에 전쟁 발발 전에 객관적으로 강화된 여순함대의 전력만을 신봉한 채 일본군의 과감한 해상활동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 적군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일본군의 전략적 목표가 여순항과 그 함대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은 개전 이후 3개월이 지난 5월 초였고 러시아군은 해상은 물론 육상으로부터의 방어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여순공방전을 치뤄야 했다. 여순함대의 주력 함선들이 여순함락 직전인 1904년 12월에 일본지상군의 포격 속에 궤멸되었다는 것은 이

32) 『러일전쟁 문서집』, c. 80-81.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모습인 데, 전쟁에 대한 준비를 객관적인 전력의 증강만으로 이해하고 적군에 대한 전략분석을 소홀히 한 러시아군의 뼈아픈 대가였다.

4. 빈약한 창의성 : 러시아군의 군사전략

러시아군의 전체적인 군사전략은 꾸로빠뜨낀의 개념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다. 그의 개념은 후에 별명과도 같이 붙여진 "참고, 참고 또 참는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영국참모부 또한 그의 전략을 "보강(подкрепление)"이라고 요약한 바 있는 데,[33] 꾸로빠뜨낀이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06년에 저술한 자신의 변명과도 같은 대국민보고서 "러일전쟁, 1904-1905. 전쟁의 결산"에서 수없이 반복한 "보강"이라는 단어는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었다. 전후 대부분의 러시아 전쟁사가들로부터 조롱받는 패장 꾸로빠뜨낀의 보강 또는 인내는, 그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소련의 군사전략가 마르뜨이노프의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시간을 벌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34]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러시아군 주력부대의 대부분은 독일과의 외교·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국방성과 재무성의 협력 부재(不在)에 따라 시베리아철도는 요동반도를 통과하는 단선노선에 불과하였다. 즉 대규모의 병력을 전쟁의 무대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의 복선화가 필수적이었는 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었다.

---

33)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2, с. 45-46.

34) Е. И. Мартынов, Из печального опыта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В кн. Политика истратегия(М., 2003), с. 58-63.

문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요구될 것인가 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은 어떠한 전략으로 일본군과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꾸로빠뜨낀은 전후 자신의 가장 커다란 실수 중의 하나가 바로 잘못 예상된 전쟁기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예측한 전쟁기간이 1.5년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1903년 3월 23일의 특별회의록에서도 증명된다. 이 자리에서 그는 "1.5년, 전비 8억 루블, 30만 명의 병력 그리고 4-5만 명의 전사자"라고 전쟁기간 및 규모를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발발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러시아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평화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꾸로빠뜨낀은 이 점이 커다란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전쟁기간을 최소한 2배로 늘려 잡아야 했다는 것이 그 스스로의 평가이다.[35]

여순항 기습 이후 1년 정도 지난 후부터 꾸로빠뜨낀은 여순함락 및 봉천회전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상군 전력의 우세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휘말려 들어갔다. 국내정치의 불안과 함께 재정은 파탄으로 치달았는 데, 이것은 곧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빈약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던 일본 또한 재정고갈에 직면하였고 따라서 평화협상은 양국 모두가 기다리던 바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치변화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 꾸로빠뜨낀은 자신의 "변명"에서 포츠머드 조약만을 탓하고 있다.[36]

꾸로빠뜨낀이 인내와 보강을 끊임없이 역설한 이유는 시간과 함께 전력의 증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인내와 보강이라는 개념에 따라 채택

35) А. Н. Куропат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3; А. А.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с. 183.

36) А. Н.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с. 200.

된 구체적인 전투에서의 전술은 후퇴와 전력의 손실 없는 패배였다. 후퇴와 패배는 전투지역의 전략적 중요도와 관계없이 반복되었다. 꾸로빠뜨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때까지 전력을 보존하고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그는 러시아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요충지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소부대로 각각 분할되어 격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37]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군의 입장에서 러일전쟁사를 편찬한 영국참모부에서도 감지되었는 데, 참모부는 만일 적의 전력이 강력하다면 후퇴하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도 내려진 퇴각명령을 신기한 듯 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전쟁사가들은 "자기희생과 용맹성"은 러시아군의 특징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군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는 항상 "집요함"이었다고 규정짓고 있다.[38]

분할·격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후퇴와 패배는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기록들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고 이 자료들은 그로 인한 전술적인 효과와 러시아 지휘관들의 심리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전투를 앞둔 지휘관에게 보내는 꾸로빠뜨낀의 명령은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데, 예를 들면, 그는 압록강 전투에 파견된 자수리치 장군에게 보낸 "후퇴를 위해서는 푼후안첸까지 가는 두 갈래의 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충고를 하고 있다.[39] 퇴각로의 확보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적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후퇴 또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모든 경우에서 성급한 후퇴를 피하고 적과의 가까운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수리치 장군은 "강력한 적군의 강습이 있을 경우에만 후퇴하고 적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반드시 유지하라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고 보고하였다.[40]

---

37) А. А.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с. 183-184.
38)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2, с. 38, 70, 106, 154-156.
39) 『러일전쟁 문서집』, с. 53.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지만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내려진 총사령관의 후퇴명령은 전투의 진행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루바예프 장군의 다음과 같은 보고는 이러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이틀 동안 양 군단은 진지를 사수하며 적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뤘다. 이틀 동안의 전투 결과 적의 전력이 월등하게 우세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나는 장군의 지시에 따라 주간전투가 끝나는 대로 밤에 하이첸으로 후퇴하기로 하였다."[41]

꾸로빠뜨낀의 거의 모든 명령에 포함되는 후퇴에 대한 세심한 고려는 지휘관들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6월 24일 미쉔꼬 장군은 "후퇴명령은 나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쉴레이꼬 장군에게 보고하였다.[42]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단행된 한 예하부대의 예상치 못한 후퇴는 종종 부대 전체의 퇴각로를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자루바예프 장군은 "낮 12시에 마르뜨손 준장은 우측 진영을 우회하여 공격하는 일본군의 강력한 전력을 보고한 후, 리뻬야 마을로 후퇴하려는 자신의 결정을 알리기 위하여 구르꼬 중령을 파견하였다. 마르뜨손 장군의 후퇴는 군단 전체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일본군은 방어진지 우익을 우회하여 군단의 퇴로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마르뜨손 장군의 퇴각을 저지하기 위하여 특사를 파견한 쭈리꼬프 장군은 그러나 "부대의 힘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후퇴해야만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다행히도 치열한 전투를 치른 군단은 "작전명령 N.2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후퇴임무를 완수하였다."[43]

전투를 준비하면서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꾸로빠뜨낀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술개념이었다. 여순항 방어를 위하여 파견된 증원군 사령관 쉬타켈

40) 『러일전쟁 문서집』, c. 52.
41) 위의 책, c. 111.
42) 위의 책, c. 108.
43) 위의 책, c. 128-131.

베르그에게 보내진 6월 7일의 명령은 "만일 적의 선봉대가 약하다면 …… 귀하의 진격은 신속하고 단호해야 한다. 강력한 적군을 만나게 된다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결정적인 충돌을 삼가야 할 것이고 모든 예비병력을 전투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고 있다.[44] 세심한 준비와 예비병력의 확보는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에 임할 때에도 중요하다: "공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방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당신 휘하의 3개 여단 가운데 1개 여단만을 전선에 투입하고 2개 여단은 예비병력으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다."[45]

꾸로빠뜨낀의 인내와 보강 전략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된 후퇴와 패배전술로 인해 러시아군 수뇌부조차 짜증을 일으켜 그의 전술은 짜르에게까지 보고되었다. 7월 30일 알렉세예프는 "우리 군(軍) 2개 군단의 후퇴는 적군의 강력한 전력이나 군사행동 때문에 취해진 것이 아닙니다. …… (적군의) 진격은 집요하지도 않았고 공격으로 전환되지도 않았습니다. …… 전투과정에서 후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정치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항구인 인코우를 상실하였습니다. 자루바예프 장군은 만주군 총사령관이 지시한 평범한 명령에 따라 자신의 결정으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전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올렸다. 8월 3일 질린스끼 장군은 "꾸로빠뜨낀은 일본의 쿠로키 군에게 아무런 군사행동을 가하지 않았고 제17군단은 요양에 남았습니다. 월등하게 우세한 전력으로 (17군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 극동부대와 10군단에 대한 공격을 퍼부은 쿠로키는 7월 18일 아군의 후퇴를 끌어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46]

인내와 보강 전략에 더하여 꾸로빠뜨낀이 집요하게 고수하였던 개념은 충분한 예비전력의 확보였다. 앞에서 인용된 구체적인 전투를 앞둔 세부적인 지시사항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비부대의 보유에 대한 그의

44) 『러일전쟁 문서집』, c. 85.
45) 위의 책, c. 122-123.
46) 위의 책, c. 113-114, 132.

강조는 개별적인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패배를 감수해야 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측면인데, 개전 초기 일본군의 진격경로와 상륙방향을 파악하지 못한 러시아군 참모부는 압록강, 발해만 그리고 랴오허강 연안의 세 지역으로 병력을 분산시켰고 결국 일본군의 상륙지역이었던 발해만에 대한 방어는 "관찰" 임무로 만족해야 했다.

전쟁 초기에 10만 명이 약간 넘는 병력을 보유했던 러시아군은 압록강-23,000명, 랴오허강 연안-35,000명, 발해만-30,000명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과 아무르강 연안에 나머지 병력을 배치하였다. 여기에서 랴오허강 연안의 요양-봉천 라인의 방어부대와 아무르강 연안의 부대들은 전체적인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예비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전략·전술적 차원의 예비전력을 제외한다면, 실제 전투에 투입된 병력의 수는 문서상으로 드러난 병력의 수와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냈다. 소련의 전쟁사가 레비츠끼는 개전 초기 예비 병력의 비율은 30% 정도였고 1년이 지난 봉천회전에서는 70%까지 상승되었다고 보고 있다.[47] 꾸로빠뜨낀 자신은 병력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어디에서 시작될지 모를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병력의 50% 이상을 예비전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48]

꾸로빠뜨낀의 핵심전략은 인내와 보강이었고 이에 따라 각각의 전투에서 채택된 전술은 후퇴와 전력손실을 최소화한 패배였다. 여기에 더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예비부대의 확보 또한 핵심개념 중의 하나였다. 그의 이러한 전략은 전력적인 측면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힘을 비축하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하여 병력을 증원한 후 "언젠가는" 일시에 적을 섬멸하겠다는 전쟁수행 전략구도에서 수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러일전쟁 기간 내내

47) 심헌용, 「러일전쟁기 '제2전장' 한반도의 지상전 -정주전투와 압록강전투를 중심으로-」, 『군사』(제51호, 2004. 4), c. 229-230; Н. А. Левицкий,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c. 83-86.

48) В. Я. Крестьянинов, Цусимское сражение, c. 26.

지속되었고 러시아 지상군의 전체적인 활동을 규정지었던 소극성으로 나타났다. 문서보관소의 사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후퇴는 전투에 임하는 지휘관들의 전략구상을 사로잡고 있던 가장 중요한 전술 중의 하나였고 종종 지휘관들 사이의 불신으로까지 불거졌다. 반복되는 후퇴전술은 기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일반 병사들의 전투의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꾸로빠뜨낀은 전후에 발간된 대국민보고서에서 일본군의 잘 무장된 정신력을 칭찬한 반면 러시아군은 혁명정신으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49]

러일전쟁을 분석한 후 이 전쟁에서 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곧 다가올 미래의 전쟁에서 부각될 공중전의 중요성이라고 주장한 다음 해인 1938년에 숙청당한 소련의 군사전략가 스베친의 주장과 같이, 꾸로빠뜨낀은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스베친은 기존의 군사전략의 틀에서 벗어나 함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일본군의 창의성이 승리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반면에 꾸로빠뜨낀의 전략에서는 함대의 활동이 개전 초기의 상황에서만 고려되었고 전쟁의 전체적인 진행과정 속에서는 무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50]

전후 대국민보고서에서 꾸로빠뜨낀 또한 일본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가 함대의 활약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51]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전쟁 전에 함대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는 지상군, 특히 서부전선에 배치된 주력부대의 희생을 대가로 함대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위험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52] 전쟁예산과 관련하여 표명된 그의 이러한 관점 이외에 그의 보고서에는 전쟁의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결부된 함대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에

49) A. H. Куропат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c. 189, 274, 391-397, 516-525.
50) A. A.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c. 102-105, 183-187.
51) A. H.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c. 195-197.
52) A. H. Куропаткин, 위의 책, c. 100-106.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전쟁 기간 동안에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가 함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한 시기는 러시아해군 내에서는 "불안한 정신(неспокойный ду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마까로프가 개전 직후 태평양함대 제독으로 임명된 3월 초부터 도고제독의 연합함대가 설치한 기뢰로 전사한 4월 13일까지인 총 36일 동안이었다. 영국군 참모부로부터는 "뛰어난 해군지휘관" 그리고 일본의 도고제독으로부터는 "군계일학(почтенный журавль среди сельских петухов)"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마까로프는 1897년에 간행된 "해군전술론"이라는 저서로 서유럽에서는 이미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 책은 1898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의 명장 도고의 애독서가 되었는 데, 그는 마까로프를 여순함대 그 자체보다도 더 비중 있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도고제독은 4월 13일 마까로프의 전사가 확인되자마자 요동상륙을 개시할 것을 도쿄에 요청하였는데, 도고는 마까로프와 함께 3척의 함정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주력 함정을 거의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여순함대가 더 이상 출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마까로프 개인적으로나 러시아의 국가적인 입장에서 비극적인 것은 그가 "불안한 정신"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해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기피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53]

전쟁 전부터 일본군 공격의 핵심목표는 여순항이 될 것이며 따라서 태평양함대의 기지는 중국의 칭다오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게다가 여순항 기습 직전인 1904년 2월 초에는 일본군의 야간기습이 염려된다는

53) С. О. Макаров, Мир не вечен … ≪Рассужд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орской тактики≫ идругие сомнения адмирала С. О. Макарова(СПб., 1997). 마까로프의 이 저서 중 가장 유명한 『해군전술론』은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S. O. Makarov, Discussions of Questions in Naval Tactics(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90); 해양전략연구소, 『세계해전사』(해군대학, 1998), 148-149쪽;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с. 74, 78-79, 86, 112;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Составлено Английским генеральным штабом, 87; В. А. Золотарев, И. А. Козлов, В. С. Шломин, История флота, Т. 1, с. 181-187.

점술가와도 같은 예언을 했던 마까로프는 "해상경찰(морская милиция)"과도 같은 임무만을 수행하던 여순함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항구에 정박한 채 위용만을 과시하던 여순함대의 전함들에 대한 해상기동훈련은 마까로프의 지휘 아래, 즉 전쟁 기간 도중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이 훈련은 동시에 일본군의 요동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순찰활동이기도 하였다. 영국참모부는 여순함대의 해안 순찰활동의 효과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의 제2군은 수송선단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1904년 6월 23일 갑자기 나타난 러시아 함정 때문에 모든 작전을 중지해야 했고 덕분에 패배한 러시아의 미쉔꼬 군대는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 불행한 것은 러시아 해군의 이러한 전과가 극히 예외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54]

다른 러시아 해군지휘관들과는 달리 적과의 전면적인 해상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까로프는 "만일 적의 함대가 매우 허약하다면 공격하고, 우리와 같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격하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매우 강력하다면 그래도 공격한다는 것이 나의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공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공격을 강조한 그의 전술에서 해군함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기동력과 뛰어난 함포였다. 기동력을 갖춘 함정들은 "치고 빠지기 (hit and away)"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조건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포가 승리를 가져오며 장갑(裝甲)은 단지 패배를 지연시킬 뿐"이라는 관점 또한 공격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그의 전술개념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이다.[55]

선제공격에 입각한 마까로프의 해군전술개념은 당시 러시아해군 지휘관

54)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2, с. 142-143; А. А. Свечин, Стратегия, с. 146; В. А. Золотарев, И. А. Козлов, В. С. Шломин, История флота, Т. 1, с. 182; 『러일전쟁 자료집』, с. 76-77.

55) В. А. Золотарев, И. А. Козлов, В. С. Шломин, История флота, Т. 1, с. 193; 해양전략연구소, 『세계해전사』, 148-149쪽.

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함선의 기동력 훈련이 아니라 함선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었다. 즉 항해술은 기피되던 훈련방식이었다. 해군성 또한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동력 훈련에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배정하였다. 함포사격 또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극도로 제한되었는 데, 특히 장거리포에 대한 고위 지휘관들의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군과 해군의 합동훈련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 데, 해안가에 설치된 아군포대의 사격으로 침몰될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1911년 해군 아카데미의 교수 네미뜨쯔는 러일전쟁기의 태평양함대를 "해양경찰"이라고 규정지었고 꾸로빠뜨낀은 "함대는 국가적인 품위유지, (해군)성 그리고 함상(艦上) 사열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해군병사들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타고난 뱃사람들(природные моряки)"이었다.[56]

러일전쟁 기간 중 양국의 해군이 다양한 전술을 동원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시기는 마까로프가 여순함대를 지휘하던 때였다. 이 시기에 도고제독은 여순항에 대한 함포사격은 물론 기뢰설치 그리고 가미가제를 방불케 하는 항구폐색작전 등의 모든 전술을 동원하여 여순함대를 섬멸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마까로프는 부임과 동시에 해안가에 포대를 설치하여 적 함대의 함포사격에 대한 대응사격을 준비하였고 적 함대의 출현과 동시에 출항하여 해상교전을 전개하였다. 해상교전에 의한 양측의 피해는 모두 미미한 것이었지만, 러시아해군에게 중요한 것은 장교와 병사들의 사기였다. 그 전까지 맞대응을 회피함으로써 함대의 존재가 의심스러웠던 병사들에게 적극적인 교전 그 자체는 그들의 자부심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었다.[57]

---

56) 해양전략연구소, 『세계해전사』, 145, 159-167쪽; В. А. Золотарев, И. А. Козлов, В. С. Шломин, История флота, Т. 1, с. 181-183; В. Я. Крестьянинов, Цусимское сражение, с. 29-34; А. Н. Куропат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с. 205-210.

57) А. Б. Широко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 ны 1904-1905 гг., с. 219-244;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с. 54-106; 김현철, 「러일전쟁기 황해해전과 일본 해군의 군사전술」, 『군사』(제51호, 2004. 4), 276-277쪽.

쓰시마해전 전까지 양국함대가 서로 상대방에게 최대의 피해를 준 공격 방식은 기뢰(機雷)였다. "검은 5월 15일(черный день)"에 연합함대는 러시아해군이 여순항 주변에 설치한 기뢰에 의하여 14척의 함정을 상실하였는 데, 이것이 러일전쟁 기간 전체에 걸쳐서 러시아해군이 올린 최대의 전과였다. 마찬가지로 도고의 연합함대 또한 여순함대의 출항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순항 주위에 기뢰를 설치하였고 러시아해군은 4월 13일 3척의 전함과 함께 마까로프를 잃었다. 시골 닭들과도 같은 나머지 러시아 해군지휘관들과의 싸움을 어렵지 않게 생각한 도고제독은 마까로프의 전사를 확인한 즉시 요동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의 요동 상륙과 함께 제기된 문제는 여순함대의 존재의미였다. 함대인가? 요새수비대인가? 결국 수비대로 전락한 여순함대는 이때부터 함대 전체의 출항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 284문의 함포를 지상수비대에 헌납하고 가끔씩 한두 척의 함정으로 경찰과도 같은 임무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함대는 8월에 블라디보스톡으로의 도주를 시도하면서 단 한번 출항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연합함대에게 더 많은 손실을 가한 채 패배하였다. 황해해전이라 불리는 이 전투 이후 요새 안에만 숨어있던 여순함대는 12월 도고제독의 독촉 아래 작열된 일본지상군의 포격으로 어떠한 저항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 때 러시아해군은 전체 33척의 배를 상실하였는데, 10여척만이 수송선과 의료함정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잠수함을 포함한 전투함정이었다.[58]

러일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객관적인 전력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인내와 보강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꾸로빠뜨낀의 의도는 몰트케 전략의 답습이었는 데,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전장에서는 거듭된 패배 속에 지휘관과 병사들의 총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되었고 후방에

58)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с. 298-309; А. Б. Широкорад, Падение Порт-Артура (М., 2003), с. 383-397; 김현철, 「러일전쟁기 황해해전과 일본 해군의 전략·전술」, 『군사』(제51호, 2004. 4), 277쪽.

서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폭발하였다. 기본적인 해상전술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러시아해군 지휘관들은 전투에 나서기도 전에 "타고난 뱃사람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패배하였다. 해군의 빈약한 인적자원 속에서 일본군의 전략과 같은 활발한 육·해군 합동작전을 전개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총지휘부의 전략구도 속에는 처음부터 해군의 활동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5. 러일전쟁에서의 함대의 역할에 대한 분석

1904년 2월 8일의 여순항 기습작전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진주만 기습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이날의 기습에도 불구하고 일본해군은 여순함대의 주력 함선들을 궤멸시킨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겨우 3척의 군함에 도크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2개월 정도의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주었을 뿐이었다.

일본참모부가 상정한 여순함대의 중요성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함포공격은 물론 항구폐색작전 및 기뢰설치 등을 통한 항구 봉쇄작전에서 엿볼 수 있다. 여순함대를 궤멸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항구 내부로 가두어 둠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일본지상군의 요동상륙작전에 대한 커다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언젠가는 증파될 발틱함대와 맞설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순함대의 제거는 필수적이었다.

여순항 기습이 감행되던 바로 그 날 연합함대 제4전대는 제물포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해군함정 2척을 모두 침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제물포 기습작전은 일본군의 단기목표, 즉 지상군의 한반도 상륙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제물포 기습 이후 일본육군의 북진은

압록강에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59]

중요한 것은 일본군이 개전 초기에 한반도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일본군의 전략이 얼마나 해군과 육군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구상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로 끝난 2월 8일의 기습공격 이후 도고제독의 주력함대는 아산항으로 후퇴하였다. 즉 2월 6일 사세보항을 떠난 연합함대의 임시기지가 바로 아산항이었던 것인데, 영국참모부는 연합함대 활동의 승패는 "일본군의 의도와 준비 그리고 임시해군기지의 위치에 관한 비밀을 보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순함대의 기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2월 9일 계속된 여순함대에 대한 공격은 아산항에서 시작되었다.[60]

주목되는 것은 제물포 기습과 함께 상륙한 일본육군 2,200명의 병력인데, 이것은 개전 초기의 상륙지점이 부산이 될 것이라는 러시아군의 예상을 뛰어 넘은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군은 북진을 위한 전투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일본참모부는 더 나아가 진남포 상륙을 검토하였으나 그 시기의 대동강물이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방안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3월 8일에 이미—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진남포에 부두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틀 후에는 성공을 거두었다.[61]

3월초 여순항에 대한 공격이 연일 계속된 가운데 도고제독은 10일 임시해군기지를 여순항에서 240마일 떨어진 해주로 이동시켰다. 영국참모부는 일본해군의 이러한 조치가 일본군 제1군의 상륙작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여순함대의 출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월 13일에는 쿠로키의 전초부대가 진남포에 상륙하였고 네 차례에 걸친 제12보병사단의 본대 상륙은 29일 완료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상륙작전과 동시에 연합함대의 여순항 포격이 더욱 격렬해졌다는 것이다. 여순함대의 출

59) 심헌용, 「러일전쟁기 '제2전장' 한반도의 지상전」, 『군사』(제51호, 2004. 4), 222-235쪽.
60)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1, с. 75-76.
61)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1, с. 76-81.

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륙작전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겠다는 의도였다.[62]

3월 말에는 오쿠가 지휘하는 제2군의 동원령이 내려졌고 이때에는 이미 진남포와 요동반도로 직접 상륙하는 두 방안이 모두 검토되었다. 그러나 자연적인 조건 및 러시아해군의 공격위험성 때문에 진남포로 결정되었다.[63] 그러나 4월 13일 마까로프 제독이 전사한 직후 일본해군의 활동은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군기지를 여순항에서 130 ㎞ 떨어진 엘리오트 섬으로 이동시켰다. 이 때 도고제독은 전함은 물론 순양함이 여순항구 밖으로 출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도쿄에 보고하였다.[64] 그리고 5월 5일 일본군의 요동반도 상륙이 시작되었다. 첫 상륙부대는 진남포에서 출항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5만 명의 병력이 운송되었다. 상륙작전의 실행과 동시에 여순항에 대한 포격이 연일 계속되었음은 물론이다. 며칠 후 만주철도가 단선되어 여순항은 만주 내륙으로부터 고립되었다. 5월 27일 일본군은 초현대식 도시였던 대련항을 "선물"로 받았고 상륙작전은 계속되었다.[65]

이제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여순항과 그 함대의 운명을 결정지어야만 했다. 극동총독 알렉세예프는 "요새를 구출하기 위하여 함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뜨게프뜨 제독에게 충고하였다. 즉 여순항을 버리고 함대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령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독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일본육군의 여순요새에 대한 포격이 본격화된 후에야 탈출을 결심하였다. 이 결과 8월 10일 벌어진 황해해전은 전투의지 없이 도주하려는 러시아함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함대와의 교전이었다. 즉

62)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1, с. 88-89; П. Д. Быков, Дей ствия на море, с. 507- 508.

63)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2, с. 2-4.

64)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с. 122-127; А. Б. Широко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 ны, 244, с. 256-257.

65) 영국참모부(편), 위의 책, Вып. 2, с. 4-6;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с. 105; А. Б. Широко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 ны, с. 271-280.

도고제독의 입장에서는 여순함대를 귀항시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투였다. 침몰된 양측 함선은 한 척도 없었지만 문제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점인데, 여순함대는 중국을 비롯한 다방면으로 흩어진 10척의 함정과 비뜨게프뜨 제독을 일본군의 포격으로 잃은 채 귀항하였다.[66]

황해해전 이후 쓰시마해전까지 러시아함대의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전쟁의 관심은 언제 여순이 함락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육군과 해군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다음해 1월 2일에야 겨우 여순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여순항이 6만 명의 병력을 상실한 일본군의 악착같은 공격을 5개월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요인은 여순수비대의 자기 헌신적인 용맹성에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순항 함락은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1905년 1월 9일 러시아의 수도 뻬쩨르부르그에서는 혁명이 시작되었다.

함대와 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일지(日誌)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본 러일전쟁에서는 함대의 중요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전쟁의 시작과 실질적인 종결은 여순항기습과 쓰시마해전이었고 황해해전과 여순함락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일본육군과 해군기지의 북상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반도에 상륙한 지상군은 곧바로 압록강 방향으로 진군함으로써 만주진격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고, 혹시 전개될지도 모를 적군의 남진을 예방하는 동시에 계속 이어질 상륙작전을 엄호할 수 있었다. 해군기지 또한 지상군의 상륙지역과 가까운 항구로 이동시킴으로써 여순함대의 방해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마지막으로는, 상륙작전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어김없이 여순항에 대한 대대적인 함포사격이 가해졌다. 여순함대의 기동작전을 예방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군의 전략에서는 육군과 해군의 조

66) Ю. В. Дискант, Порт-Артур, с. 129, 159-199; А. Б. Широко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 ны, с. 271-280.

화를 이룬 합동작전이 돋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육·해군의 합동작전을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군은 그럴만한 "지적능력"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적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했고 한반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상륙작전에 대한 정보수집에도 소홀히 하였다. 방어와 후퇴만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채택함으로써 압록강에서 여순항 그리고 만주내륙의 봉천으로 이어지는 긴 방어선을 형성하였고 결국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러시아군은 육상과 해상에서 "심리적으로" 각개 격파당한 후 여순항에서 함께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6. 결　　론

1905년 5월 쓰시마 해전에서 발틱함대가 궤멸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꾸로빠뜨낀은 "현재의 러시아 국경을 만든 것은 함대가 아니라 육군이다.…… 일본은 바다에서의 승리자이지만 별 것 아니다. 일본은 전쟁 초기부터 제해권을 장악하였고 우리 함대의 패배는 현재의 전쟁조건에서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67] 논평의 옳고 그름을 떠나 놀라운 것은 논조의 태연함과 해군에 대한 무관심이다.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러한 신념 아래 그는 1905년 8월에 체결된 포츠머드 조약은 "전혀 예기치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표현하였다.[68]

쓰시마 해전의 의미는 사실상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다. 혁명으로 치닫고 있었던 러시아와 재정고갈에 직면한 일본이 전쟁을 지속

67) В. А. Золотарев, И. А. Козлов, В. С. Шломин, История флота, Т. 1, с. 220.
68) А. Н. Куропат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с. 200.

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평화협상은 두 나라 모두 내심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협상에서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발틱함대는 협상 테이블에서 조커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던 발틱함대이기는 하지만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해상 게릴라전이라고 볼 수 있는 현존함대전략(fleet in being)을 구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의 협상능력은 보다 강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발틱함대가 건제하게 블라디보스톡에 입항한다면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도고제독에게는 섬멸의 대상이었다.[69]

전쟁 종결 후에도 각각의 전투가 가지고 있는 군사·정치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꾸로빠뜨낀은 자신의 저서 "러일전쟁"에서 패전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을 국민들의 혁명적 정서로 돌리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국민 일부 계층들 사이에 혁명적 분위기가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여순항 기습소식을 접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승리를 염원하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패배는 절망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절망감은 여순함락과 함께 끝내 혁명으로 폭발되었다.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중요한 전쟁에서 한 국가의 전체 병력을 총지휘하던 전쟁지도자는 전후에도 그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그는 패배의 책임을 국민과 병사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참담한 군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포츠머드 회담에서 러시아에게 유리한 모든 조건을 끌어낸 전(前)재무장관 비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용감하지만 머리가 없는" 러시아군이라고 평가하였다.[70]

---

69) В. Я. Крестьянинов, Цусимское сражение, 140-141; В. А. Золотарев, И. А. Козлов, В. С. Шломин, История флота, с. 210-211.

70) А. Б. Широко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 ны, с. 409.

참 고 문 헌

김현철, 「러일전쟁기 황해해전과 일본 해군의 전략·전술」, 『군사』(제51호, 2004. 4).
말로제모프 A. (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서울 : 지식산업사, 2002).
심헌용, 「러일전쟁기 '제2전장' 한반도의 지상전-정주전투와 압록강전투를 중심으로-」, 『군사』(제51호, 2004. 4).
심헌용 편역, 「러일전쟁과 한반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조명철, 「러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만주전략」, 『군사』(제51호, 2004. 4).
최문형,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서울 : 지식산업사, 2001).
해양전략연구소, 『세계해전사』(해군대학, 1998).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 엄수현(역), 『日本軍事史. 경제대국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해부』(서울 : 시사일본어사, 1999).

Marks, Steven G. Road to Power: The Trans-Siberian Railroad and the Colonization of Asian Russia, 1850-1917(Ithaca, New York: Cornell Univ. Press, 1991).

Быков, П. Д., Дей ствия на море в Русско-японскую вой ну, Левицкий Н. А., Быков, П. Д.,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М., 2003).
Дискант, Ю. В. Порт-Артур, 1904(М., 2003).
Золотарев, В. А., Козлов, И. А., Шломин, В. С., История флота государст ва россий ского. Т. 1(М., 1996).
Истр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Конец XIX-начало XX века, (От русск о-франецузского союза до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М., 1997).
Истор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1904-1905 гг.(М., 1977).
Крестьянинов, В. Я., Цусимское сражение 14-15 мая 1905 г.(СПб., 2003).
Куропаткин, А. 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Итоги вой ны(СПб., 2003).

Левицкий , Н. А.,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одов, Левицкий , Н. А., Быков, П. Д.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М., 2003).

Макаров, С. О., Мир не вечен …… ≪Рассужд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орской т актики≫ и другие сомнения адмирала С. О. Макарова(СПб., 1997).

Мартынов, Е. И., “Из печального опыта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В. кн. П олтика и стратегия(М., 2003).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Составлено Англий ским генеральным штабом. Вы п. 1(СПб., 1908) и Вып. 2(СПб., 1909).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Дей ствия сухопутных вой ск. Сборни к документов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1904-1905 гг.(М., 1941).

Широкорад, А. Б., Падение Порт-Артура(М., 2003).

Широкорад, А. Б., Россия-Англия: Неизвестная вой на, 1850-1907(М., 2003).

Широкорад, А. Б.,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 ны 1904-1945 гг.(Мн., 2003).

(원고투고일 : 2004. 10. 14,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러・일전쟁, 러시아군, 군사전략, 창의성, 함대

KCI

<ABSTRACT>

The Tragedy from the Poverty of Creativity: The Strategy of the Russian General Headquarter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Park, Myoung-yong

The Russo-Japanese War had broken with the Surprise Attack on Port-Arthur. At the same time the Japanese Army landed on Port *Jemulpo* near Seoul. The Japanese Army marched towards the *Yalu* River and *Manchuria,* China. Side by side with the march of the army, the temporary harbor of the Japanese Joint Fleet moved from Port Sasebo in Japan to *Asan* and *Haeju* in Korea. At last, when the army has crossed the *Yalu* River and landed on the *Manchuria* Area crossed the Yellow Sea, the Japanese Navy harbored on the Island Eliot near Port-Arthur.

This Joint Operations of the Japanese Army and Navy showed us the way how the Japanese General Headquarters planned the strategy on the war against Russia. In the first place, they had to finish the war as fast as possible because Japan could not compete with Russia in the General National Power. They had to have in mind the presence of the Trans-Siberian Railroad and the Baltic Fleet of Russia. Secondly, they planned to destroy the Port-Arthur Fleet of Russia as fast as possible. In result of the failure in the Surprise Attack against this fleet, the Port-Arthur Fleet was able to prevent the manoeuvre of the Japanese Army on the continent. So destroying the Port-Arthur Fleet was the foremost goal of the whole Japanese Army and Navy.

In contrast with the Japanese Strategy of the rapid advance of the army and the wide activity of the fleet, there was no place for the fleet in the plan of the Russian General Headquarters. They had not taken the Russian Fleet into account in planning the strategy of war with Japan. In addition, the Russian Navy had not trained the officers and sailors to cruise on the sea and to shoot the cannon from the ship. In short, the Russian General Headquarters had no idea to joint by the Army and Navy, and, in its turn, the fleet was not able to manoeuvre with the army. The joint catastrophe of the fortress Port-Arthur and its fleet symbolized this situation.

On the whi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the Russian Army continued to be defeated by the Japanese Army. The repeated defeat resulted from the objective weakness of the Russian Army compared with the Japanese Army and at the same time from the Strategy of the Russian General Headquarters. According to this strategy, the Russian Army needed the time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wer and increase the number of the soldiers. This aim could be attained only by the Trans-Siberian Railroad. But the trains could move on one-lined railroad. In other words, the transportation ability of this railroad was very small, so the Russian Army needed time. So the Russian General Headquarters passed the strategy of the repetitive defeat with the preservation of its manpower. But this strategy accompanied the successive defeat and lowered the morale of the officers and soldiers, especially Russian people in the rear area.

The Strategy of the Russian General Headquarters was the repetition of the Moltke's Strategy. In his plan there was no place for the fleet because he was continental. But the Main Theater of the Russo-Japanese War was the *Manchuria* and Korean Peninsula where surrounds by the Yellow and East Seas. 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Far East was not that of Europe. So the side which was more creative could gain the victory in this war.

Key Words : Russo-Japanese War, Russian Army, Military Strategy, Creativity, Fleet